

총장-뉴스레터 – 83 (2024-6-21) 여호수아 개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 1:3-4)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게 의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어져 가고 있다. 모세의 시종 (수종자)이었던 여호수아에게는 선임자가 하던 일을 이어가야 할 의무가 남아 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그것이 이제야 성취되는데, 그것도 모세에게 확증된 그대로 성취된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렇게 자리를 제대로 잡게 된 새 시대는 왕정기로 계속 이어진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12 지파가 차지할 땅은 여호수아 시대에 차지할 땅보다 훨씬 더 넓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수 13-19 장에서 분배한 지경보다 더 넓은 지역을 4 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확장된 대 제국의 영토를 언급하고 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애굽의 핍박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내어 자유롭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에 데려다 주신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러 사건 중심에 여호수아가 자리잡고 있으므로, 그 이름을 따라 이 책을 ‘여호수아’라 할 만하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는 ‘언약’의 중재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의 임무는 그보다 제한적인 것이었다. 곧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백성을 이끄는 자였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

가나안 작전이 순전히 군사작전인 것만은 아니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우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6 장) 그 땅 주민들을 두려워하고 떨게 만드신 (2:9-11)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정복의 전 과정에서 똑똑히 드러난다. 여호수아는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 이상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계명에 순종하도록 독려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나누는 일의 절정에 이르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 누구를 섬길 것인지 분명히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갱신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미 여러번에 걸쳐 입증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있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명령은 성경의 곳곳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강하게란 ‘대담하게’, ‘용기 있게’라는 뜻이다. 이런

믿음으로 인한 결단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하였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21:45) 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씌어졌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선물로 받은 땅을 잃을 위험을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의식 가운데 씌어졌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농업을 넘겨 받는 동시에 그와 관련된 종교관행을 배우게 된다. 여호수아는 이 유혹을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하는 관점에서 가나안 정복을 묘사하고 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순전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바벨론 포로기에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유권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지난 날 벌어진 가나안 정복 가운데서 생생하게 제공한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이 곤경에 처한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이시고 자기 백성을 다른 세력의 노리갯감으로는 지금도 내어주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겨나고, 또한 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에게만 모든 것을 기대하라고 권고하게 된다.

생각하기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장구한 세월이 흐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다. 언약은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자, 역사 진행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이다. 그러므로 노예처럼 억압당하거나 광야를 유랑하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과 비전을 잃지 않는다.

모세는 선민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였다. 그러나 약속의 땅 목전에서 그는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죽었으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졌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여호수아서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성도의 기업인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신약 진리의 일면을 예표하고 있다.